



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Knowledge for the General Public

Sanghyun Kim, Bo-Ryeong Nam, Sang-Kyun Kim*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Korean medicine has long been used to treat patients in Korea. Many clinical knowledge have been accumulated in ancient literatures for a long time. It is traditionally related to our culture and its utilization is high. However, because most Korean medicine knowledge is provided in a form that only the researchers or doctors of Korean medicine can understand,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se the knowledge. There are several websites that provides the Korean medicine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ublic, but the information is fragmentary.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the health knowledge based on Korean medicine for the general public, we in this paper constructed the information on medicinal materials, formulas, diseases, food ingredients, yak-seon foods, terminologies from many literatures in Korean medicine. Difficult clinical terminologies were translated to make i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and the elements related to each other were connected among the knowledge.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on diseases and food ingredients have been described in ancient literatures for the general public to treat and prevent diseases themselves.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information even in modern times. The knowledge constructed in this paper will be able to utilized to th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near future.

© 2018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Health knowledge,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informations,
Korean medicine knowledge, Public knowledge informations

ARTICLE INFO: Received 23 February 2018, Revised 26 March 2018, Accepted 13 April 2018.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ivision of Future Medic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Korea.
E-mail address: skkim@kiom.re.kr

1. 서론

한의학은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활용되고 검증된 전통의학이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보다는 현대의학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통 의료 지식으로써 가치는 높다. 한의 지식은 전문 의료 지식이다 보니 주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검색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어려운 한자나 전문 용어들 때문에 검색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이 힘들다.

우선적으로 한의 지식은 한자로 쓰여진 고문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T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한의학 데이터는 아직도 종이책이나 스캔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공유되는 게 대부분이며, 동의보감과 같은 일부 서적의 경우어나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문헌은 한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이나 바이오 분야와는 달리 디지털화된 한의 지식이 적은 편이며, 이 지식 또한 전문가 대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데이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은 주로 대형 포털에서 한의 지식을 검색하게 되는데, 대형 포털에서는 비전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한의 건강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건강 지식 포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한의지식포털의 차별성을 밝혔다. 이어서 어떤 지식을 구축하였는지 소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약재, 처방, 병증, 식재료, 약선, 용어 지식을 일반인의 수준에서 구축하고 각 콘텐츠를 연계하였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콘텐츠가 지니는 의미와 연계된 콘텐츠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의 지식 콘텐츠는 코인(KOIN, Korean medicine 人)이라는 한의지식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다[1]. 현재 웹버전(<http://www.koin.re.kr>)과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또한 iOS와 Android 마켓에서 “KOIN”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2. 관련 연구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은 여러 곳이 있다. 다만 서비스 취지와 콘텐츠의 성격은 각각 차이가 있다. <표 1>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 정보 포털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비교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비교한 포털들은 모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약 융합연구정보센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현대의학 기반의 건강 지식을 다루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국민건강지식센터는 방대한 양의 건강 정보를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유용한 건강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두 양방 의학 지식이며 한의학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지식센터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선별된 전문 지식인이 에세이 식으로 집필한 콘텐츠를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필진이 작성한 콘텐츠들 간에 상호 연계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외에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경우 한의학 지식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출처가 사전에 수록된 정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표 1. 국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ortal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in Korea

	한의학지식포털	국가건강정보포털[2]	국민건강지식센터[3]	한의학융합 연구정보센터[4]
사용자 층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연구자 및 일반인
콘텐츠 유형 (일반인 대상 지식)	개조식 정보	개조식 정보	에세이식	에세이식
일반인 대상 지식 건수	약재 537건, 처방 56건, 병증 60건, 식재료 248건, 약선음식 170건, 용어사전 17333건	건강/질병 정보 736, 용어사전 420건	건강정보 204건	생활 속 한의학 지식 305건
카테고리 기준	병증, 식재료, 약선음식	검색기능 제공 (증상, 증후)	건강증진, 생활건강, 식생활건강, 신체활동	저자별(주제별)
비고	한의학 기반 건강 지식	현대의학 기반 건강 지식 (중증 질환 포함)	현대의학 기반 생활건강 지식	한의학 기반 건강 지식

3. 한의 지식 설계 및 구축

3.1 한의 지식 콘텐츠의 구성

KOIN의 한의학지식 콘텐츠는 크게 6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재지식, 처방지식, 병증지식, 식재료, 약선음식, 용어사전이 그것이다. 각 영역의 콘텐츠 구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1.1 약재지식

약재지식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537건이다. 한의 온톨로지[5,6]에 구축된 약재 데이터 중 대한민국약전(제10개정)과 대한민국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약재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각 약재의 기본 정보 중 학명, 이명, 약용부위, 성상은 약전, 생약규격집과 같은 공정서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효능은 한의온톨로지의 약재 데이터와 연결된 효능과 주치 데이터를 일반인 대상으로 번역하여 가공하였으며[7-9]. 복용주의사항은 고문헌(동의보감)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해 기록하였다. 또한, 고문헌(동의보감, 향약집성방)에서 해당 약재에 대한 효능 정보와 단일 약재를 활용한 치료 정보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10,11].

3.1.2 처방지식

처방지식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56건이다. 여기에 수록된 처방 리스트는 실제 한의원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처방받을 수 있는 한약제제의 리스트이다. 기본적으로 처방의 구성 약재와 용량 정

보, 그리고 간략한 주치증상 정보를 정리하였다 [12]. 그 외에 복용시 주의사항은 약학정보원에 고시된 정보를 기록하였다. 추가로 전문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처방의 관련논문, 관련기사 정보를 제공하였고, 한의학 전문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 처방의 기원이 되는 원문 정보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3.1.3 병증지식

병증지식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60건이다. 병증 지식은 한의학 전반의 병증 지식을 정리한 것은 아니며, 약재, 처방, 식재료 지식에서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한의 병명, 증상 혹은 건강증진 관련 효능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해 구축한 것이다. 병증 지식은 안이비인후, 소화기, 피부, 비뇨기, 전신, 근골격계, 건강증진, 정신/심리, 감기몸살, 머리, 여성질환 등 11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각 영역이 구조적 기준, 계통적 기준 등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에 중복해서 해당되는 병증지식도 있다. 각각의 병증지식에 대해서는 병증에 대한 한의학적 해설을 기재하였다.

3.1.4 식재료 지식

식재료 지식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248건이다. 동아시아에서 식약동원(食藥同源 =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이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식재료와 약의 경계를 두지 않았던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동의보감』, 『향약집성방』과 같은 고문헌에 수록된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13]. 고문헌에 수록된 약용 식재료 중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항목을 선별한 뒤 각각의 효능 및 주치증상 정보를 기술하였다. 또한 식재료 정보를 감과류, 견과류, 과일류, 곡류, 버섯류, 식육류, 알류,

양념류, 어류, 연체류, 우유류, 조류채소류, 콩류, 향신료류, 기타의 16가지로 분류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3.1.5 약선음식

약선음식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170건이다. 기본적으로 한의지식포털에 수록된 식재료를 활용한 약선음식 레시피이며, 간략한 설명·관련 식재료·재료 및 분량·만드는 법·조리 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13].

3.1.6 용어사전

용어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는 총 17,333건이다. 한의온톨로지에 있는 효능과 주치 용어들에 대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 및 가공한 사전으로서, 다른 콘텐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정보로 활용하였다.

3.2 한의 지식 콘텐츠의 연계

구축된 6가지 영역의 한의 지식 콘텐츠는 각각 의미 있는 정보이지만 동시에 서로 독립된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약재는 처방의 구성요소이고, 약재로 사용될 수 있는 식재료가 있으며, 식재료는 약선음식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병증지식에서는 특정 증상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재, 처방, 식재료, 약선음식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또한 각 콘텐츠에 기술된 내용 중 전문용어의 경우는 용어사전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림 1>은 병증지식 중에서 기침(咳嗽)에 대해서 이러한 한의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도식화해 본 것이다.

여러 처방과 개별 약재에는 기침의 증상을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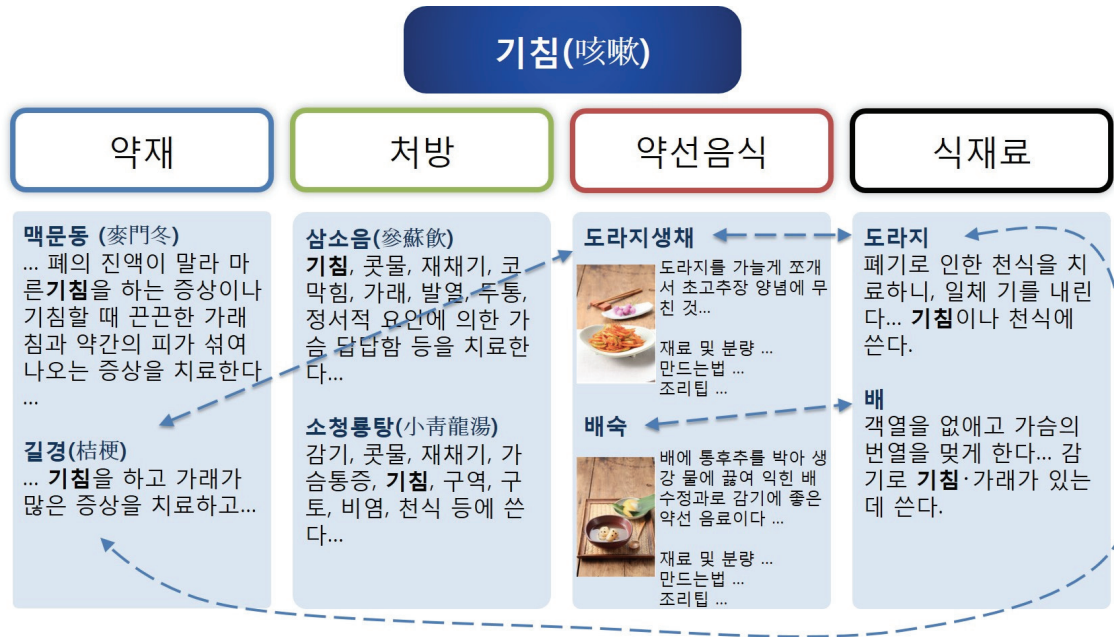


그림 1. 병증·약재·처방·음식·식재료 지식 간 연계 예

Figure 1. An example of linkage between knowledges of symptom, medical medica, medical formula, medicinal food, and food ingredients

한다고 나와 있으며, 기침에 좋은 식재료와 이 재료를 이용한 약선 음식 정보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길경이라는 약재는 도라지와 동일한 것이며 도라지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으로는 도라지생채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도라지의 효능 중에 폐기와 배의 효능 중에 객열, 번열 등과 같이 전문적인 용어는 용어 사전을 통해 쉬운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처방들의 내용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여러 약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방지식에서는 약재지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개별 지식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였다. 약재지식의 경우 하나의 기원식물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부위를 다른 약재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칩뿌리에 대한 약재 이름은 갈근인데, 이 식물의 꽃은 갈화라는 약재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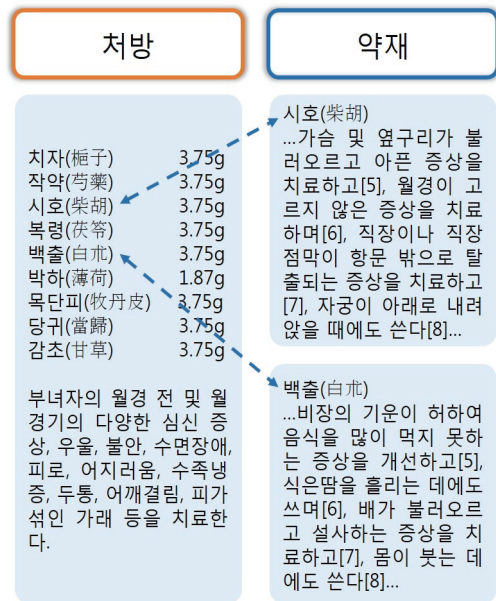


그림 2. 처방·약재 지식 간 연계 예

Figure 2. An example of linkage between knowledges of medical medica and medical form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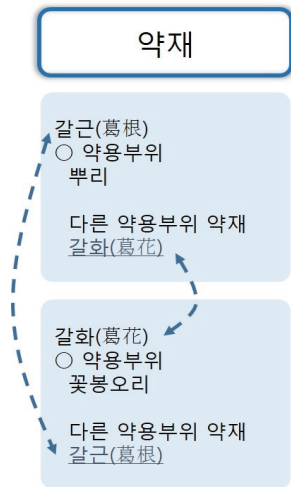


그림 3. 약재 지식 간 연계 예
Figure 3. An example of linkage between knowledges of medical medicas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한의 지식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것은 아니며, 일반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지식을 구축하고 이들 간에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식은 전문가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과서와 고문헌 등을 근거로 하여 전문가의 의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의 지식포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28.3%가 병증 지식을 가장 유용한 정보로 골랐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본인의 증상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17.8%가 응답한 식재료 정보인데, 이 역시 의료기관 방문 전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행위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인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병증 지식은 어떠한 것일까? 아무래도 외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은 병증일수록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22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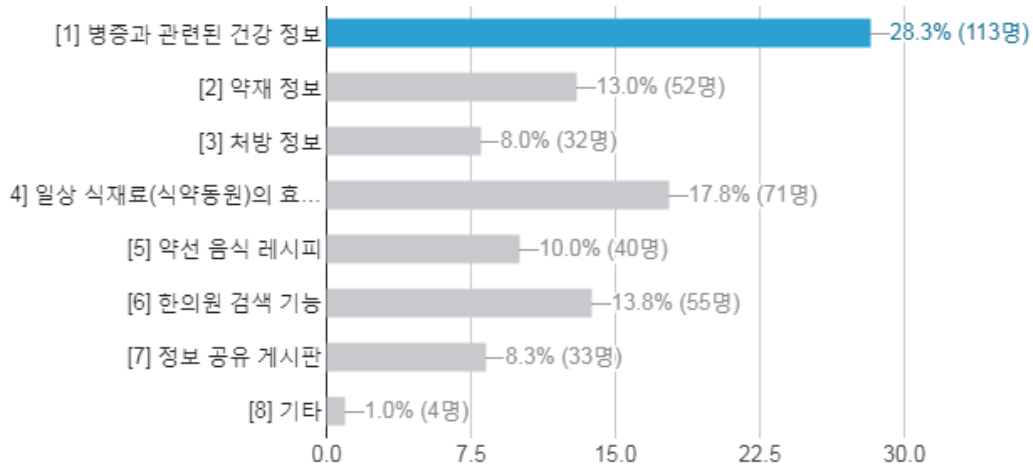


그림 4. KOIN 메뉴 중 유용한 정보에 대한 설문 결과
Figure 4. Questionnaire result of helpful information among KOIN menu

류별 급여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외래 기준으로 내원 일수가 많은 질환의 순위는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의 순으로 이어진다[14].¹⁾ 물론 각 범주 내에서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흔하게 앓을 수 있는 질환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 해석한다면,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단계에 병증 정보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의지식포털에 구축된 60건의 병증지식 중 호흡기계(감기몸살), 근골격계, 소화기계 병증은 16건으로 약 2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두 번째로 유용하다고 평가한 식재료 정보의 성격은 어떠한 것일까?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동의보감』의 경우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이라는 편제 안에 각각 다양한 병증을 수록하고 있고, 각 병증 챗터 말미에 해당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단방(單方)을 소개하고 있다. 단방이란 단일 약재로 처방한다는 의미로서, 당시 복합처방을 구하기 힘든 백성들이나 전문지식이 없지만 책을 볼 수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질병에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덧붙여 동아시아의 식약동원이라는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단방 지식에 많은 식재료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병증 챗터의 검색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1차적인 처치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의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 알맞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향약집성방』은 조선 전기 국산 약재를 활용하여 병을 치료하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의

학 전문서적으로서, 조선 고유의 독자적인 의학지식을 구축하려 했다는 평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까지의 의학지식 특성 상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쓴다는 식의 방약(方藥) 위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병명이나 증상과 연결되는 약재 지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15].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국산 약재를 활용한 것과 단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의학 지식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의 지식은 과거 의학문헌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 외에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검증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문헌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의 근거 수준을 갖춘 정보를 구축하였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의 지식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앓기 쉬운 질환군에 대한 정보와 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처치 수준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전문가의 감별이 필요한 병증의 경우 그 콘텐츠의 효용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통이라는 병증 지식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²⁾ 하지

1) 2016년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중 외래 내원일수는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으로 각각 179,171,737일, 125,110,514일, 108,689,327일이다. 참고로 4, 5위의 순환기계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은 각각 54,868,248일, 50,109,316일이며, 1, 2, 3위의 내원일수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2) 다음은 두통이라는 병증을 설명한 글이다. 비록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병증 설명에 다양한 병인(病因)을 언급하였다. 이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 영역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찬바람을 쐬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의 두통은 특히 목덜미가 뻐뻐하고 빠질듯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땀을 내어 체표의 기를 발산시켜야 합니다. 열이 심해지고 갈증이 나면서 이마 주위가 더 아픈 두통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열이 속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속열을 풀어주고 대변이 잘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편두통의 경우 열(熱), 담(痰), 혈허(血虛) 등 다양한 병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반 증상을 토대로 잘 분류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숙취나 음식이 체하여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두통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두통

만, 그와 연결된 식재료 지식의 경우 병의 원인에 따라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¹⁾ 근본적으로 일반인이 그 원인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즉,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이라는 전문분야의 지식과 식재료라는 일반인 활용 지식의 결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비록 음식과 약의 기원이 같다는 사상적 배경이 있지만, 현실에서 무난하게 활용하는 식재료들에 탁월한 효능이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잠정 배제하고 수용해야 할 지식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사전적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소스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일반인이 각자의 건강에 불편함을 느낄 때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중 특히 한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문헌 수준의 신뢰도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에게 한의 건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재, 처방, 병증, 식재료, 약선음식, 용어사전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지식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의지식포털을 활용한다면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병증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활용할 수 있는 간략한 처치로써 식재료 및 약선음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컨대 ‘두통’과 연결된 식재료 ‘결명자’에 ‘두풍(頭風)을 치료하고 시력을 좋게 한다.’는 정보는 병인(病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므로 그 활용에 한계가 있다.

기존 건강지식포털에서 에세이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넘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문헌 근거를 갖춘 것으로서 웹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또한, 콘텐츠 및 한의지식포털의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병증, 식재료, 약선음식에 대한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실제, 지식이 추출된 고문헌은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정보에 해당하기에, 이들이 일반인 대상 한의지식정보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의 지식 정보는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rean medicine knowledge portal, <http://www.koin.re.kr>, Feb. 2018.
- [2] Health / Disease Information, <http://health.cdc.go.kr/health/Main.do>, Feb. 2018.
- [3] Health Information, http://hqcenter.snu.ac.kr/archives/jiphyunjeon_type/health, Feb. 2018.
- [4] Korean medicine in daily life, https://www.kmcric.com/knowledge/inlife/list_inlife, Feb. 2018.
- [5] H. Jang, *Ontology-bas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nowledge framework*,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2012.
- [6] H. Jang, J. Kim, S-K. Kim, C. Kim, S-H. Bae, A. Kim, D-M Eom, and M-Y. Song, *Ontology for medicinal materials based on*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ioinformatics, Vol. 26, No. 18, pp. 2359-60, 2010.
- [7] The Korean herbology compilation committee, *Herbology*. Younglimsa, Seoul, 2005.
- [8] M-G. Shin, *Clinical herbology*, Younglimsa, Seoul, 1997.
- [9] G-G. Shin, *Shin's herbology[special]*, Sumoonsa, Seoul, 1988.
- [10] M-K. Shin, K. Park, and W-J. Maeng, *Hyangyak-jibseongbang*, Yeong-lim Publishers, Seoul, 1998.
- [11] J. Heo, and J-P. Jin, *New parallel translation texts of Donguibogam*, Beobin Publishers, Seoul, 2012.
- [12] Joint text compilation committee for formula study, *Formula science*, Younglimsa, Seoul, 2008.
- [13] W-C. Jang, *Therapeutical effects of Korean food ingredients in DongUibogam-publication in Korean and English*,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jong, 2013.
- [14] Salary status of 22 diseases by disease classification in 2016, <https://www.data.go.kr/dataset/3034276/fileDat> a.do, Feb. 2018.
- [15] M. Jung,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the Hyangyak-jibseongb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 5, pp. 94-95, 1991.

일반인을 위한 한의학 지식 구축

김상현, 남보령, 김상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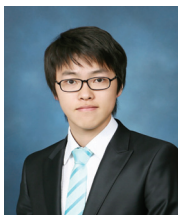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요 약

한의학은 오랫동안 환자의 치료에 활용되어 왔고, 한의학 지식은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도 녹아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정작 관련 지식을 검색할 경우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식 정보이거나 칼럼 형태의 정보가 많다. 한의학 지식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몇몇 웹사이트가 있지만 그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의학 기반 건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약재, 처방, 병증, 식재료, 약선음식, 용어사전 지식을 구축하였고 각 내용은 알기 쉽게 풀이하였으며, 연관도에 따라 각 데이터를 연계하였다. 특히 식재료, 병증 관련 지식은 고문헌에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라 한의 지식 포털의 성격에 부합한다. 또한 연계된 데이터가 향후에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이 논문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2015M3A9E3051024)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PHR 활용기술 개발(K1809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Sanghyun Kim received the M.S. degree an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from Kyunghee University in 2011 and 2016, respectively. Since 2013 he has been a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Korean Medicine information, Korean Medical Classics.

E-mail address: kshr@kiom.re.kr



Bo Ryeong Nam received the Master Degree of Mathematics from Hannam University. Since 2012, she is a senior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Korean medicine information and healthcare.

E-mail address: qhfud0319@kiom.re.kr



Sang Kyun Kim received the M.S. degree an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1 and 2008, respectively. After the graduation, he has been researched on the Korean medicine informatics in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E-mail address: skkim@kiom.re.kr